

2003 서울국제식품전

주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후원: 산업자원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과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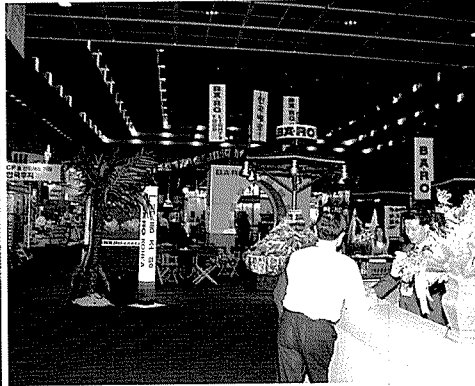
2003 서울국제식품전 성황리 개최 제과기계·재료 업체 차별화된 부스 마련 돋보여

2003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2003)이 지난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코엑스 태평양·대서양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전시회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식품산업 국제종합전시회로서 올해에는 한국을 포함 중국·일본·캐나다·덴마크·스리랑카 등 14개국 288개사가 참가해 작년 대비 2배의 규모를 보였다. 국내 참가 업체들의 수출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한 결과, 계약 성사액이 전년 대비 50% 증가한 2,500만 달러를 기록한 것도 이번 전시회의 성과.

한편 제과제빵 관련 업체들의 참가수는 전년의 절반 정도로 저조해 전반적인 업계 불황을 반영했다. 특히 제과기계공업협회 차원의 공동부스를 마련한 국내 제과기계업체들은 대영제과제빵기계공업, 영송기계공업, 우정공업, 대흥기업, 대건쇼케이스, 대우공업, 고려통상 등 7개 업체가 참가해 전년에 비해 4개 업체가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반면, 신라명과, 유니온무역상사, 선인, 대두식품, 두리메링계, 한국베로(주)성원, 다림 너츠빌 등 재료 관련 업체들의 참가는 오히려 전년보다 활발했다.

제과 기계와 재료를 총망라한 참가 업체들의 공통된 특성은 업체마다 차별화된 부스 구성에 노력했다는 점이다. 신라명과는 부스 앞



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고, 선인은 자사의 파베이크 제품을 즉석에서 구워 나눠주었다. 기계 업체들도 설탕공예용 작업대(우정공업), 트윈스도어오븐(대영제과제빵기계공업), 샐러드용 쇼케이스(대건쇼케이스) 등의 각자 제품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부스 구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관을 이끌었다.

참가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식품전은 보다 광범위한 고객에게 업체 및 제품 홍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참가 의미를 밝혔다.

(취재·김미선)